‘바늘구멍’ 된 특별승급…이젠 강자의 증거

3개 회차 연속 1·2착…점차 감소
엄정일·이강토 특선급 다시 승급

경륜에서 특별승급은 선수에게 재도약 발판을 마련해 주기 위한 제도다. 3회차 연속 1착 또는 2착한 선수가 상위 경주등급 및 해당 경주등급 결승에서 3번 이상 1착 또는 2착한 경우에 1개 등급을 승급한다.

광명기준 13회차까지 선발·우수급을 통틀어 특별승급에 성공한 선수는 10명에 불과하다. 해가 갈수록 인원이 줄어 특별승급 관문을 통과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보여준다. 2019년 상반기 때 우수급에서 선발급으로 17명, 특선급에서 우수급으로 19명이 내려가 총 36명이 강급됐다. 이들 역시 승급요건 강화와 선수들의 기량 평준화로 특별승급에 도전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

최근 선발급에서 특별승급을 이룬 선수들은 이주현, 이형민, 설영석, 손재우 총 4명. 3명은 24기 신인이고, 설영석만 신인들과 강급자들을 따돌리고 승급에 성공했다. 여기에 특별승급 대상자였던 하동성, 정승까지 포함해도 6명에 불과하다. 특별승급한 4명을 살펴보면 모두 우수급에서도 통할 수 있는 선행, 젖히기 능력을 보유했다는 점에서 자력승부가 되지 않으면 상위등급으로 올라가기 힘들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우수급에서 특선급으로 올라간 선수는 이유진, 전종헌, 엄정일, 이강토, 엄희태, 홍의철 총 6명이다. 이중 상반기 등급조정 때 강급됐다가 다시 올라간 선수는 엄정일, 이강토 뿐이다. 강급자 중 고병수와 김민균은 특별승급에 도전했으나 마지막 관문을 뚫지 못했다.

강급자들만이 특별승급에 성공했던 과거와 달리 기존 강자들이 오히려 강급자들을 실력으로 제압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우수급도 선발급과 마찬가지로 자력형들이 눈에 띄는 활약상을 보였다. 자력이 안되는 선수라도 노련한 전종헌이나 이유진처럼 라인전환과 몸싸움 통해 전법적인 한계를 극복하면 특별승급할 수 있다는 점을 입증했다.

19기 엄정일

20기 이강토

특별승급한 선수들이 상위 라운드에서 활약하고 있다는 사실도 주목할 만 하다. 이형민은 승급한 첫 회차 마지막 날 경주에서 강력한 선행 한방으로 강축인 김정태를 따돌리고 2착하며 쌍승식 20.3배 중배당을 낳았다. 엄정일은 승급 첫 날 호쾌한 젖히기로 우승해 쌍승식 321.7배 고배당을 탄생시켰다. 특별승급이라는 관문만 뚫는다면 충분히 경쟁력 있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점을 증명한 사례다.

‘명품경륜 승부사’ 이근우 씨는 “특별승급 요건을 갖추기만 해도 대단한 선수로 평가하는 것이 경륜판도다”며 “연속입상 행진을 이어가거나 자력승부를 통해 결승까지 접수하는 활약을 보여주는 선수는 훈련량과 컨디션, 자신감이 뒷받침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어서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용운 기자 sadzoo@donga.com

경륜경정 강남 장외지점 복합 스포츠공간 재탄생

경륜경정 강남지점이 국내 최초 스포츠 복합형 지점으로 재개장했다.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총괄본부는 5일 조재기 이사장, 정병찬 경륜경정총괄본부장, 지역상생협의체 장훈 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식 개장식을 진행했다.

베팅 중심 공간이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장외지점이 스포츠 복합문화공간으로 변모하기 위해 50억 원을 투입해 지난해 10월부터 시설환경개선공사를 진행했다. 892석이던 좌석을 567석으로 줄이고, 100% 지정좌석제를 도입했다. 구매 방식도 유인 발매 중심에서, 무인 구매와 전자카드 등을 이용하는 고객자율구매 방식으로 전환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의 대표 스포츠복지사업 중 하나인 국민체력 100과 VR 체험 시설 등 스포츠 체험 공간을 마련해 지역사회에 개방한다. 경륜경정 경주가 없는 매주 월요일에는 스포츠댄스, 탁구 교실을, 화요일에는 노래, 요가 교실을 운영한다.

조재기 국민체육공단 이사장은 이날 개장식에서 “체육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국민이라는 공단 미션에 부합하도록 스포츠 문화교실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장외지점 최초로 국민체력 100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지점을 찾는 고객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복합 문화공간으로서 역할을 기대한다”며 기대감을 내비쳤다. 정용운 기자

KSPO 인도어 사이클링 대회 소규석 최소연씨 남녀부 우승

소규석

최소연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총괄본부는 6일 광명 스피돔 2층 라운지에서 ‘2019 KSPO 인도어 사이클링 마스터즈 챔피언십’을 개최했다.

이번 대회에는 동호인 65명, 엘리트 선수 8명 등 73명이 참가했으며, 예선 경주 10R(여자부 2R, 남자부 8R), 특별경주 2R, 결승 경주 남녀 각 1R 등 총 14R가 열렸다. 엘리트 선수가 참가한 특별경주에는 경륜 특선급 선수인 인치환, 김관희, 황준하와 국내 엘리트 사이클을 대표하는 박성백, 김군수 선수 등이 참가했다. 박성백은 특별경주 우승으로 국내 사이클 로드 레이스 최강자임을 증명했다.

남자부 소규석 씨(38·공무원)가 13분 43초로, 여자부 최소연 씨(35·회사원)가 15분 10초로 우승을 차지해 각각 100만 원, 80만 원의 상금과 트로피를 받았다. 결승에 진출한 8명과 이벤트에 당첨된 갤러리 28명에게는 ‘2019 백두대간 그란폰도 무료 참가권’을 증정했다. 정용운 기자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

이번 부르는 봄바람, 선회 모습을 관찰하라

날씨 영향 큰 경정…바람 체크 중요
스타트와 선회 능력·모터 확인해야

경정은 선수의 기량, 모터의 기력 못지않게 날씨 같은 경주 외적인 부분에도 많은 영향을 받는다. 특히, 바람은 스타트와 선회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어 세심한 체크가 필요하다.

1~2m/s 정도의 약한 바람은 경기에 큰 영향을 주지 않지만 3~4m/s 이상만 되도 스타트나 선회 시 선수들이 위축될 수 있어 바람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

경정에서 바람은 세기도 중요하지만 어디로 부는지 방향도 중요하다. 크게 등바람과 맞바람으로 분류한다. 등바람은 계류장에서 1턴 마크 쪽으로 부는 바람이고, 맞바람은 반대로 1턴 마크에서 계류장 쪽으로 부는 바람을 말한다. 스타트 라인 위에 있는 깃발들을 보고 바람의 방향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맞바람보다는 스타트 때 등 쪽에서 부는 등바람이 선수들에게는 위협적이다. 스타트 기준점 잡기가 까다로워져 경험이 부족한 신인들이나 평소 플라잉이 자주 있던 선수들, 플라잉 유예기간에 걸려 있는 선수들은 스타트 부담을 가질 수 밖에 없다.

또한 등바람이 불 때는 1턴 선회를 하면 바람을 정면에서 맞게 돼 선회 스피드가 생각보다 나오지 않거나 선회가 크게 밀리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그래서 찌르기나 휘감아 찌르기 전법이 좀 더 유리하다. 빈틈을 잘 파고드는 선수들이 이변을 일으키거나 하위급 선수라도 초반 선두권으로 나선다면 우승 확률이 높다. 추격하는 선수들은 바람과 함께 거센 항적을 뚫어야 해 역전을 성공시키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바람을 다스리는 자가 이긴다.” 경정 선수들이 미사리 경기장에서 하얀 물보라를 일으키며 바람을 뚫고 질주하고 있다. 경정 경주에서 바람은 스타트와 선회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세기와 방향에 주의를 해야 한다.
사진제공 |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사업본부

바람이 많이 불어 수면이 거친 상황이라면 소개항주시 선수들의 선회를 평소보다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좋다. 선회에 자신이 없는 선수나 힘이 달리는 모터들이 평소보다 확연히 눈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

경정 전문가들은 “강한 바람은 선회 뿐만 아니라 스타트에도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스타트를 주무기로 하는 선수들보다 경험이 많은 노련한 선수들과 전개를 잘 풀어가는 선수를 눈여겨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조언한다. 정용운 기자

MAKOTO KUSANAGI

힘빠지는~ 골프스윙 연습기!! 쿠사나기 스윙119

2018 스포츠조선 교육만족도 1위 | 2018 스포츠서울 히트상품 | 2018 스포츠동아 히트상품

잘못된 스윙자세를 바로 잡는 꺽이는 스윙연습기

골프는 에임3년, 힘 빼는데 3년이 걸린다는 말이 있다. 그만큼 에임도 힘들지만 힘 빼기가 쉽지 않다는 말이다. 손목이나 어깨에 힘이 들어가면 골프의 모든 샷 은 일정함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기존 스윙연습기의 판도를 완전 깨버리는 스윙연습기가 출시돼 화제다.

빈스윙만 하는 골프연습기가 아니다 직접 볼을 때리면서 잘못된 스윙궤도를 찾아내는 스윙연습기의 혁명이라 감히 말한다. 올바른 스윙궤도를 유지하게 되면 임팩트와 피니쉬까지 일직선으로 교정되며, 잘못된 스윙시에는 샤프트 하단 꺽임현상으로 틀린 자세를 인지시킨다. 이런 연습을 반복하다보면 스윙 자세를 바로 잡아준다 하겠다.

골프 스윙의 정석만을 고집한다 골프는 어드레스-빽스윙-다운스윙-임팩트-피니쉬로 1-3초 안에 네가지 동작을 한다. 이중 하나의 동작만 잘못되도 원하는 스윙이 나오지 않는다. 이런 동작은 잘 만들어진 궤적에서 시작한다. 정석 궤적을 만들다 보면 자연스럽게 팔과 어깨에 힘을 빠지게 하는 혁신적인 골프 스윙 연습기라 하겠다.

투르템퍼샤프트장착 우선 아이언7번으로 제작했다. 초.중.상급자가 모두 사용 가능한 스윙119는 바른 궤적과 불필요한 상체의 힘을 자연스럽게 빼주는 기능이 있다. 연습장에서 사용도 가능하지만 필드에서 연습스윙 5-10회정도 연습으로 스코어가 다운되는 효과가 탁월하다. 스트레칭 후 5-10회 정도 필드 스타트 전에 꼭 사용하길 권한다. 다른 스윙연습기와는 엄청난 차이를 느낄 것이다.

바른 스윙시

잘못된 스윙시

이런 분들께 적극 추천합니다
- 빽스윙이 너무 빠른분
- 상체에 힘이 많이 들어가는분
- 임팩트시 헤드업 하시는분
- 피니쉬가 안되는 분
- 스윙 자세가 엉망인분
- 팔로만 스윙 하시는분
- 하체 체중 이동이 안되시는분
- 필드에서 스트레칭용 장비가 필요하신분

소비자가 198,000원 특가 128,000만원

홈페이지 www.OPTOP.co.kr
문의전화 1544-2749